

# 복장규범으로부터의 이탈행동과 자기모니터링과의 관련 연구

— 서울시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

임선희·김진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때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도 한다. Snyder는 이러한 행동의 조절을 자기모니터링(self-monitoring)이라 정의했다. 즉 상황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언어 혹은 비언어적 자기표현을 조절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기모니터링이 높은 사람은 자기 행동의 상황적 및 대인적 적절성에 관심을 두며, 행동의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단서들에 민감하고, 이러한 단서들을 자신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자기제시 방법에 조절하거나 통제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집단규범에 더욱 동조하며 자신의 호의적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자기모니터링이 낮은 사람의 표현행동은 사회적 상황에 부합되기 위해 자의식적으로 구성된다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 감정상태에 의해서 통제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단규범에의 동조가 낮으며, 동조의 경향도 상황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 일관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모니터링의 정도와 집단의 복장규범으로부터의 이탈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교복을 착용하는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기모니터링 정도와 복장규범으로부터의 이탈정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와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자기모니터링의 정도에 따라 복장규범의 이탈정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 중고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사항은 ① 머리길이에 대한 규정 위반이 가장 잦은 빈도(한번 이상의 경험 : 62.1%)를 나타냈고, ② 무스나 젤, 헤어스프레이 등의 모발제품의 사용(한번 이상의 경험 : 61.2%)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복장규범으로부터의 이탈행동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에 따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화장과 장신구 사용에 관련된 2개의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3. 자기모니터링의 정도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자기모니터링 정도에 따른 복장규범으로부터의 이탈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모니터링이 높을수록 이탈행동 경향이 많았으며, 자기모니터링이 낮을수록 이탈행동의 경향이 적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성격측정 변인의 하나인 자기모니터링 정도와 집단의 규범에 대한 동조성과의 관련성이 개인의 외모관리의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기모니터링이 높은 사람은 집단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의복에 대해서는 동조성과 개성을 모두 중요시한다 (Davis와 Lennon; 1985). 본 연구에서는 자기모니터링이 높을수록 집단의 복장규범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범에 대한 동조성보다는 자기자신의 개성을 살리거나 준거집단의 기준에 동조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에 따른 차이 및 교내 복장과 교외 복장에서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the Deviation from Norms of Attire and Self-monitoring**

**—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Sun-Hee Lim and Jin-Goo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ccording to self-monitoring is that people differ in the extent to which they can and do observe and control their expressive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Individuals high in self-monitoring are thought to regulate their expressive self-presentation for the sake of desired public appearances, and thus be highly of situationally appropriate performances. Individuals low in self-monitoring are thought functionally reflect their own enduring inner states, including their attitudes, traits, and feelings, and to conform to normative pressure in a group.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t is correlated the level of self-monitoring with the deviant attire. Subjects was 206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The results are following :

- (1) The frequent forms of deviant attires were ① the length of hair (more than one : 62.1%) ② the use of hairdoing cosmetics, such as hair stying mousse, gel, and spray (more than one : 61.2%).
- (2) The deviant attires were grouped into four factors. Two factors, using makeup and accessory, have differed according to sex.
- (3) It was not find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vel of self-monitoring with sex and

age.

- (4) It was correlated the level of self-monitoring with the deviant attires. The high self-monitors have deviant behaviors of attires more than low self-monitors.